

스펙이라니, 약탈이야:

'연구자' 없는 '논문'의 현실

박숙자 (서강대)

출전 및 원자료: [스펙이라니, 약탈이야: 엘리트카르텔과 능력주의], 문화과학, 2022. 가을.

“좋은 나쁜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이며, ‘외부’가 없는 세계이다.”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공통체>, 사월의 책)

01

1. 연구자/논문의 현실: '논문' 생산을 둘러싼 관계

교수 A는 외과 전문의다. 교수 A가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의대 편입 시험이 치러졌다. 이 학교는 국립대 중 유일하게, 정성평가 비중을 40퍼센트 이내로 하라는 교육부 권고안을 무시하고 서류, 면접, 구술면접의 비중을 800점 중 500점으로 구성했다. 2017년 이 시험에서 구술로 만점을 받아 합격한 학생을 a'라고 하자. a'에게 만점을 줬던 교수들은 '공교롭게도' 교수 A와 논문 35편, 24편을 같이 작성한 친분이 있었다....그런데 같은 시험에서 2017년 시험에서 떨어졌으나 2018년 합격한 또 다른 학생 a"도 있다.(2017년 서류와 2018년 서류는 오탈자까지 동일했지만 a" 는 2018년 합격했다.) 학생 a'와 a"는 교수 A의 딸과 아들이다.

「정호영 딸 편입 때, 9개 국립대 의대 중 경북대만 '구술면접」, 『한겨레』, 2022. 4. 27. 「정호영 아들, 똑같은 자소서 내고 이듬해 40점 더 받아」, 『한국일보』, 2022. 5 3.

교수 B는 국립대 교수다. B의 논문에 자주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연구자를 b라고 하자. b는 2008년 SCI급 학술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에는 b 외에도 네 명의 공저자가 있다. 모두 교수 B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이었다. 단지 b만 '고등학생'이었다. b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원생이 되는 동안 B와 b는 모두 43번의 논문에 같이 썼다. 때때로 제1저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b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했다. b는 B의 아들이다.

「高1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서울대 교수 '꿈찍한' 자식 사랑」, 『국민일보』, 2017. 11. 20.

c는 정확히 한 명이 아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c들'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일단 'c'라고 해두자. 이들은 해당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선후배이다. 이들은 학술지를 발간, 출판하는 책임을 나누어 가졌다. 이 학술지에서 어떤 심사위원은 한 해 동안 156회나 심사에 참여했다. 다른 심사위원의 명의를 도용해서 심사를 진행하기도 한 해 동안 68번이나 심사위원을 한 다른 교수는 본인의 논문조차 주위 동료들에게 심사를 맡겼다. 한 대학원생은 c들을 지켜보며 "본인들끼리 심사를 하고 본인들끼리 투고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c'의 논문 출판 과정에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표절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대학원생 c는 본인의 박사논문을 지도교수가본인 논문인 양 출판했지만 말하지 못했다. **c는 c의 제자다.**

「논문 공장의 영업 비밀① 어느 학술단체의 '가짜 심사'와 '도둑 논문」, <뉴스타파>, 2021. 6. 23. ;

「논문 공장의 영업 비밀② 표절 조작 부실 논문도 '패스'...KCI 등재지의 민낯」, <뉴스타파>, 2021. 7. 1.

D는 장관이다. 2019년 D의 자녀 d'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논문을 작성했다. 당시 d'를 지도했던 교수는 "미국 유학을 갈 것이라고 해서 도움이 되게 선의로 해줬다"고 해명했다. d'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의학 분야의 논문을 썼다. 총 6명의 저자가 참여한 논문이었으나 고등학생이었던 d'가 제1저자가 되었다. d'는 대학교 소속으로 표시되었다. 2022년 또 다른 장관 D"의 자녀 d" 역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학술 논문을 작성했다. d"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10쪽 분량의 논문 7편을 작성했는데, 5편을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했다. **'d들'은 'D들'의 자녀이다.**

「조국 딸, 고교 때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지도교수 판단" 해명」, 『한겨레』, 2019.

「미주맘 "한동훈 딸 논문, 대필 가능성 커... 끝까지 파헤칠 것"」, 『한국일보』, 2022. 6. 24. 8. 20.

「조작으로 쌓아올린 한동훈 처가의 '아이비 캐슬' 공개」, <뉴스타파>, 2022. 7. 7.

- A, B, D는 의사, 교수, 고위 공무원이다. ... a, b, d의 스펙은 '능력(주의)'이고 A, B, D의 행태는 '세습(주의)'인가. 이들은 학술지식(논문)을 '능력'/'세습'으로 획득했다.
- c와 c는 같은 학교 동문이다. 'c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도 같은 학술지에서 '저자'와 '심사위원' 등의 위치를 반복하며 학술지를 발간했다. 이들은 '학연'에 기반한 엘리트카르텔이다. 이 공고한 결속이 학문공동체인가?

(강태영, <논문을 쓰는 고등학생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s://minvv23.notion.site/Research-1a29de36959241d78e28e32eeb4fa936>)

- A, B, C, D는 교수, 의사, 고위 공무원이다. 이들이 세습/점유 했던 것은 엄밀히 말해 '그들의 것'이 아니다. 엘리트 카르텔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공 영역에 놓인 자원과 기회를 '약탈'하는 양상이다. A, B, C, D의 점유와 세습은 개인의 자원이나 기회가 될 수 없는 공통의 것을 포획하는 것.
- A, B, C, D는 한 개인의 권리나 자원으로 축소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것, 논문생산의 지위, 공정한 기회, 교수와 학생 간의 호혜성 등을 개인의 것으로 약탈했다. ('약탈'은 공통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소유/점유하는 행위)
- A, B, C, D의 약탈적 행위는 특권화된 지위를 통한 지대 추구 행위

- **학문공동체의 약탈:** 학술 생태계의 일원이 되어 타인의 사유와 경험을 윤리적으로 참조·인용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복수의 주체들이 경합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지식 생산에 참여한다는 믿음과 신뢰 등 이것들은 학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원리이자 가치다. 이것들은 자본의 원리로 환원될 수도 없고, 권력의 담보물이 될 수도 없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공성, 호혜성, 윤리성 등은 거래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 **학문공동체의 붕괴:** 학술지식이 '스펙'으로 거래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야기한 원인이자 결과다. 지식 생산의 결과를 자본으로 거래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시장의 질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식 생산 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대필과 표절로 논문을 작성하는 일이 입시학원의 사교육으로 상상되는 한, 학술 생태계는 엘리트의 '능력주의'를 증거하는 '스펙'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스펙'으로 독점될 수도, '능력'으로 약탈될 수도 없는 '공통의 것'에 대한 상상이 절실하다.**
- **학문공동체? '논문'이 '스펙'으로 교환, 전유되는 학술연구/평가 시스템에 대한 점검**

“.....우리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학, 사이언스를 한다는 것은 세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공중(퍼블릭)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지 평가 및 학술지 실태점검 개선 발전 방안 연구」(김명환) 중 과학 분야 편집자 FGI.

02

2. '약탈'의 조건

원래 '약탈적 학술지'라는 말에서 약탈의 주체는 학술지이고 약탈의 대상은 연구자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한국에서 약탈적 주체는 학술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학술지와 연구자 그리고 대학의 공모에 주목해야 한다. 2018년 한 매체의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의 연구자들은 약탈적 학술지의 주요 고객이다. 대표적인 가짜 학회인 와셋(WASET)에 참여 빈도수가 높은 연구자 2, 3, 4, 6위가 한국인 연구자다. 오믹스(OMICS) 역시 마찬가지인데 와셋과 오믹스 학술행사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108개의 대학 및 기관에서 1,31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믹스 학술지에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기관의 연인원은 서울대 162명, 연세대 112명이고, 게재 건수가 많은 10개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명문대로 표상되는 'SKY'가 약탈적 학술지의 활용 빈도 역시 가장 높다.

약탈적 학술지의 이용 빈도수와 연구 실적이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이들 역시 산학기관에 연구비 신청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 해당 대학은 "국제적 규모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학교 역시 '문제없음'으로 답했다

한국에서 '약탈'의 주체는 학술지+연구자+대학(연구기관)

「돈만 내면 가짜 논문으로도 참가...황당한 국제학술대회」, <MBC 뉴스데스크>, 2018. 7. 19

「와셋' 사태 잇었나, 해외 '엔터리 학회'에 줄 선 학자들」, 『한국일보』, 2019. 3. 19.

「뉴스타파, 가짜 학회 '오믹스' 학술지 투고 학자 데이터 공개」, <뉴스타파>, 2019. 3. 14.

「뉴스타파, 가짜 학문 제조 공장의 비밀」, <뉴스타파>, (<https://www.youtube.com/watch?v=5WUgDNIeZ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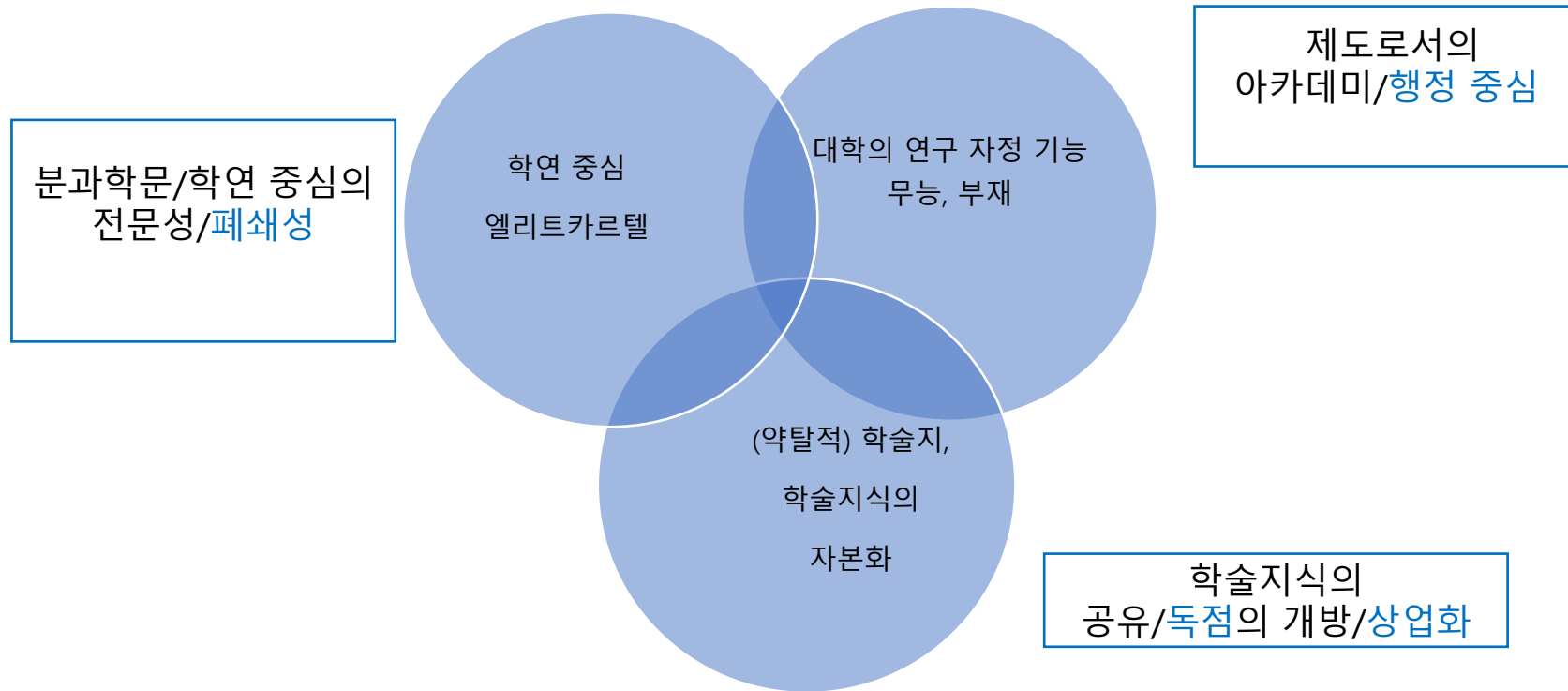
*약탈의 조건

- 1) 국제 논문 / 국내 논문의 차별적 위계 (국내 학술지의 저평가)
- 2) 양적 평가 중심(학술지식의 수량화)
- 3) 상용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학술지식 공유, '그들만의 리그'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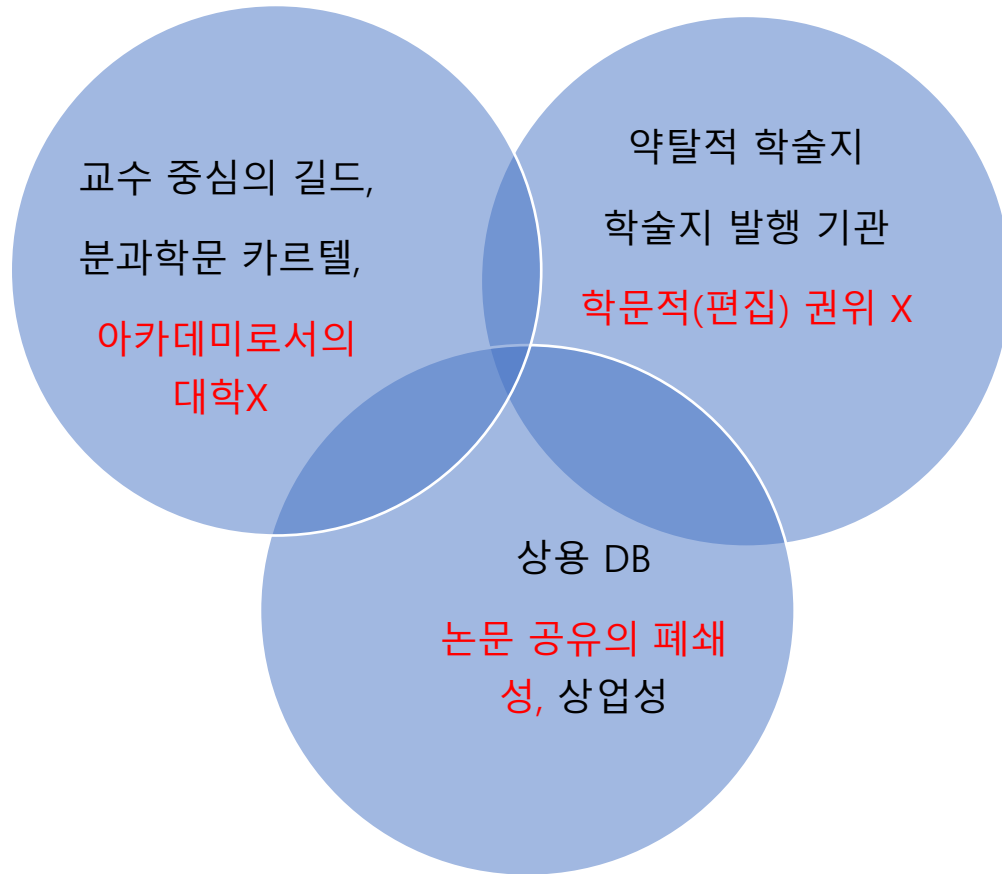
“SCI 논문을 냈느냐 안 냈느냐로 아카데미 소사이어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군다나 그걸 줄 세워서 임팩트 팩터 10점짜리 논문에 낸 사람하고 1점짜리 낸 사람하고 10점짜리 논문을 낸 사람이 한 10배 정도 일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NEJM*(*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나 *Lancet*에 논문을 낸 사람은 병원에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논문의 접근성이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학, 사이언스를 한다는 것은 세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공중(퍼블릭)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문 저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퀄리티가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국문 학술지에는 상당히 좋은 논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영문으로 된 논문들을 리뷰해서 국문으로 출판합니다.”

학연 중심의 엘리트카르텔, 학문 공동체로서의 대학의 기능 부재, 약탈적 학술지(부실 학술지)와 학술 DB의 상업화 등이다.



CF. '약탈'의 트라이앵글



- **학술논문**: 부실 학술지('약탈'적 학술지)
- **학위논문**: 교수와 대학: 논문 심사와 검증 무능.
- **상용 DB**: 논문 공유의 폐쇄성과 상업성

스펙으로서의 논문
학술장의 공동화空洞化
유령이 된 연구자

“생태학은 생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파괴된 삶의 조건들을 전반적으로 탐구하기 때문이다” (브뤼노 라투르, <녹색계급의 출현>, 이음)

03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문생산체제의 성찰: '지식 공유' 중심의 학술정책 변화 촉구

* 지식공유연대,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공동심포지엄, 2019.8.29

* 지식공유연대, <해피캠퍼스 등 리포트 거래 사이트의 학술논문 거래 실태 개선 촉구와 지식공유운동 확산을 위한 연구자 연대 선언>, 2020.7.7. <https://knowledgecommoning.org/notice?mod=document&uid=16>

* 박숙자·정경희·박배균·천정환·고찬미·장문석·조은정, 『포스트코로나19 대응 학술단체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정책과제), 한국연구재단, 2021.

* 김명환·이수상·강명숙·박숙자, 「학술지 평가 및 학술지 실태점검 개선 발전 방안 연구」(정책과제), 한국연구재단, 2022 참고

* 지식공유연대·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기획, 박서현·정경희 엮음, 『지식을 공유하라』, 빨간 소금, 2022.

학문공동체에서 '학술생태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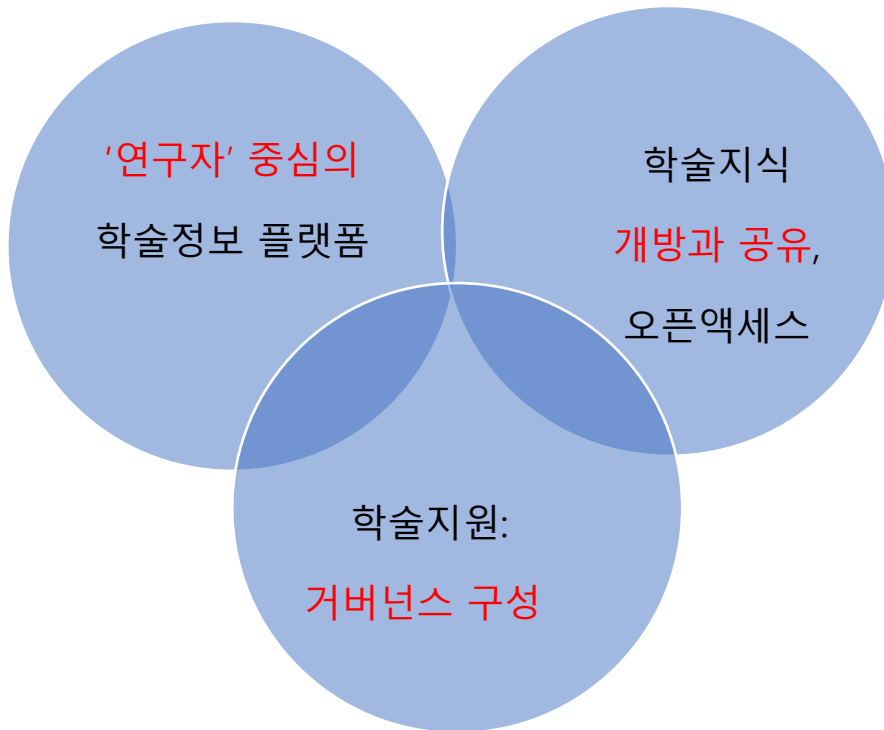
- 학과(교수), 학회, 학교: '그들만의 리그' 자폐적, 독점적 시대 추구의 경향
- 학문공동체의 공동화(空洞化), 황폐화
- 현재의 학문공동체(학과, 학회, 학교)의 '외부'(또다른 연결)를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 학문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조망: **학술생태계**
- '학술생태계'는 '회복'인 동시에 '창안' 되어야 하는 학술장이다.
- 학술생태계는 '학술 지식(연구)'이 아니라 '연구자'로부터 시작된다.
- '연구자'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정책이 아니라 '학술생태계' 회복으로: 두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 '연구자'의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협력과 참여의 경험이 학술생태계의 시작이다.

** '지식공유'의 네트워크(지식+데이터) + '연구자'= 학술생태계

지식생산자, 교수, 강사에서 '연구자'가 되자

- + '학위'를 통한 '자격'에서 연구자로 나아가는 '연구(자)의 윤리' 필요
- + '연구 윤리'는 '연구자의 윤리'
- + '연구자의 윤리' 혹은 연구자로서의 '습(習)'의 발견/발명은 기존 학술제도만으로 불가능
- + '연구자'의 실천적,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학술정책+학술제도가 필요.
- + '학술생태계'에 참여, 훈련, 소통하는 것을 통해 가능

'연구자' 중심의 '학술생태계'



[논문 + 연구데이터] + 연구자
: [관리, 감시, 참여] + 생산

: 연구자의 커머닝 과정
: 학술생태계 자정 능력 회복

박숙자·정경희·박배균·천정환·고찬미·장문석·조은정, 『포스트코로나19 대응 학술단체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정책과제), 한국연구재단, 2021.

「"공기처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지식 공유 플랫폼' 필요해요"」, 『한겨레』, 2022. 6. 1.

권범철, 「연구와 연구자 그리고 커먼즈」, 성신여대 인문도시사업단 컨퍼런스 <학술커먼즈로 바라본 대학과 지역> 발표문, 2022. 6. 10.